재미작가 홍언의 미국기행시가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작가의식

박 미 영*

<국문초록>

기행문학이란 기행지의 풍물과 체험, 감회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自我와 맞닥뜨리는 자연, 현상, 그리고 타인이라는 他者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인간이 기행하고 있는 공간은 현실적 체험의 공간으로 현실의 법칙이 적용되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정신적인 지향점을 찾아 나서는 내면화의 공간으로서 그 반응 양식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미국에서 활약한 작가 홍언(洪焉:1880~1951)의 美國 紀行 詩歌-가사와 시조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들 작품에서 홍언이 체험하고 표현하는 미국의 풍물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작가 의식의 변모를 논의한다. 1936년과 37년, 그리고 1949년 두 차례에 걸쳐 『신한민보』에 발표하는 미국기행 시가를 중심으로 논의한 작가의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기행가사에서는 돌아갈 고국이 있음을 전제한 망명자로서 내면적 갈등이 드러난다. 즉 인디언을 통한 정체성 상실과 이민자들의 비참한 노동현장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면서 향수에 젖어 끊임없이 고국으로의 귀환을 갈망한다. 두 번째 기행시조에서는 돌아갈 고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게 된 현실에서 갈등한다. 즉 조국 귀환에로의 욕망이 좌절되면서 현지에 대한 친화적인 시선을 보이면서 이민지에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자아의 노력이 드러난다.

위에서 논의한 홍언의 작가의식의 변모를 바탕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본질에 대해 가설적인 좌표를 마련해 보았다. 이민지인 현지와 조국에 대한

* 백석대

긍정적, 부정적 태도에 따라 좌표를 설정하였다. 홍언은 한국의 독립이라는 큰 사건을 계기로 조국에 긍정적이면서 현지에 부정적인 태도에서 그와는 정반대인 조국에 대해 부정적이면서 현지에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한다. 이 전환과정에서 홍언은 현지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으로 재이미지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 고찰한 홍언의 기행 시가는 이민지인 미국의 자연과 인간이라는 복합적인 관계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의 정신적인 궤적은 고국/이민지, 자아/타자, 향수/현실적응 등등의 현재 이산(diaspora), 혹은 후기 식민(post-colonial) 문학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복잡미묘한 정체성확인 지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확산될 이민지 작가들의 정신적 지향-고국과 이민지라는 두 힘의 관계양상 속에서 향수와 현지적응에의 노력이라는 정체성 확인에 대한 다양한 축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본다.

핵심어 : 홍언, 홍종표, 동해수부, 시조, 기행시조, 기행가사, 기행문학, 망명문학, 디아스포라 문학, 이산문학,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 후기식민 문학, 신한민보, 국민회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미국에서 활약한 작가 홍언(洪焉: 1880~1951)의 美國 紀行 詩歌-가사와 시조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들 작품에서, 홍언이 체험하고 표현하는 미국의 풍물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작가 의식의 변모를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돌아갈 고국이 있음을 전제한 망명자로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갈등, 돌아갈 고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게 된 현실 즉 조국 귀환에로의 욕망 좌절과 현지 동화를 위한 자아의 갈등이 노정되는 작가의식과 더불어 이민지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코리안 디아스포

라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행문학이란 기행지의 풍물과 체험, 감회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自我와 맞닥뜨리는 자연 혹은 현상, 그리고 타인이라는 他者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조선조의 우리 선조들이 遊覽, 遠遊 혹은 遊山라는 이름 하에 행해졌던 觀遊 紀行은 결국 자연관, 인간관, 세계관 등을 노정하고 정신적인 지향점을 표출하는 정신사로서의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따라서 인간이 기행하고 있는 공간은 현실적 체험의 공간으로 현실의 법칙이 적용되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정신적인 지향점을 찾아 나서는 내면화의 공간으로서 그 반응 양식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두 차례에 걸친 미국의 기행에서 창작한 홍언의 작품에 나타나는 이민지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반응양식은, 이민자들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하고 있는 문학의 갈래가 가장 전통적인 시가 양식인 歌辭와 時調임을 볼 때 홍언의 정신적인 태반과의 관계, 우리 민족의 정체성 또한 정교하게 얽혀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홍언은 고국으로의 회귀와 이민지인 미국에의 정착이라는 끊임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며 갈등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민지 작가이다. 조국을 자의든 타의든 떠나서 망명 혹은 이민이란 조건 속에서 조국에 대한 향수, 귀환에의 갈등과 정체성 탐구 등 다중적인 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현재 후기식민 문학[Post-Colonial literature]이 적극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하이브리드(hybrid:잡종성)'과 '디아스포라(diaspora:離散)'의 핵심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디아스포라'란, 원래 고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신전이 파괴된 후에, 세계 각처에 퍼진 이산 유태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다가 요즘은

그 의미가 확대되어, '조국'에서 추방된 혹은 망명한 민족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때 '디아스포라=이산'이라는 말에는, 언젠가는 '조국'으로 귀환해야 하며, '조국'에서 격리된 상태는 과도기적인 일시적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은 이같은 '고향상실'을 민족적 정체성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라, 망명지 혹은 이민지를 자기의 실존을 생성하는 장소로 받아들일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1)]

이런 점에서 이미 홍언은 조국에 대한 귀환의 꿈과 이민지에서의 정착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조국과 이민지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내면화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민지 작가이다.[2)] 그런가 하면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통해 분열된 자아를 어느 한 쪽으로 통합해 가는 과정을 노정하고 있다. 미국 이민 1세들, 즉 일제라는 상황 하에서 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조차도 망명적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는 홍언과 같은 세대들에게, 在美-미국에 있는 행위는 고국으로의 귀환이 전제된 일시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조국에서의 악조건이 사라진 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在美라는 상황의 지속은 '재미한인(在美韓人)',[3)] 즉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미국인도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과 그 정체성이 모색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지에서 생활인으로서 정착할 수밖에 없는 한민족, 혹은 그 이·삼세들에게는 문화적 충격과 흡수라는 과정에서 민족적 주체성과 자기정체성 확립이 커다란 화두로 등장하며, 정체성 혹은 삶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와 타자 사이를 끊임없이 왕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

1) 이연숙(2001), 「디아스포라와 국문학(Diaspora and National Literature)」, 『민족문학사연구』 19, 민족문학사학회, 64면.
2) 박미영(2004), 「재미작가 홍언의 몽유가사·시조에 나타난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21, 한국시조학회.
3) 이연숙(2001). 65면에서는 "재일(在日)"이라는 말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한 세계의 확대와 이에 대한 규명은 현재 코리안 디아스포라, 후기식민 문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민지에서 초기의 한 시대를 이끌어 간 작가로서, 개체의 발생은 종족의 발생을 되풀이 한다는 진화론적인 이론에 비춰 볼 때 홍언이라는 한 개인의 미국 현지 인식과 정체성 확보과정은 후기식민 문학이 제시하는 디아스포라 즉 망명, 혹은 이민이 고향상실이라는 정체성의 결여가 아닌, 자신만의 실존을 생성하는 장소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홍언이 행한 여러 차례의 미국 기행 가운데 구체적인 가사와 시조 작품을 남긴 두 차례의 기행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언이 남긴 기행 가사와 시조를 대상으로 미국 체험을 드러내는 인식을 검토하여 문제를 재점검해보고 이민지에서 실존의 방식을 모색하는 작가의식을 살펴 이산문학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인 바탕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즉 한민족의 활동 범위가 세계 도처로 넓어지고 이주목적이 다양해진 오늘날, 일제강점시기에 이뤄졌던 망명문학뿐만 아니라 "이민지문학" 혹은 "해외거주민문학"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이룩한 해외문학의 성과를 포괄하고 이론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요구의 중심에 홍언이라는 작가를 놓는다.

2. 紀行 詩歌의 의미

연구 대상인 작품은 홍언이 미주 발행 국민회 기관지인 『신한민보(The New Korea)』지에 발표한 400여 수의 서정 작품 가운데 어느 특정시기에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발표되는 일련 기행시가는 33편이다.[4]

4) 목록은 부록 참조.

이 작품들은 두 차례 집중적으로 게재되고 있어 기행 시기나 발표에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936년 1월부터 1937년 5월에 이른다. 이 시기는 22편이 발표되는데, 애리조나 주,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 등 미국 중서부의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걸친 지명이 나타나고 있으며, 작품은 거의 개화가사의 형식이다. 두 번째 시기는 11편이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1949년 9월부터 11월까지로 〈가주긔힝〉이라는 제목하에 소제목이 붙는 연시조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의 가사는 '동히슈부'라는 필명으로, 두 번째의 시조는 '추선'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되고 있다.

홍언의 삶은 여행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5] 1904년 초기 이민자로 하와이에 가게 되는데 이때 이미 중국 각지를 여행한 상태였으며, 1911년 이후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다가 결국은 독립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이민지에서 生을 마감한다. 그는 도산 안창호를 정신적 지주로 삼아, 조국 독립을 믿으며 새로운 한국의 재건을 꿈꾸는 재미한인 신문 『新韓民報(The New Korea Times)』에 평생을 투신한다. 특히 그는 1919년 3·1운동 이후 1920년부터는 재미 한인 단체인 국민회와, 이들의 기관지 격인 『신한민보』에서 내각통일과 해외민족의 대동단결이 독립쟁취의 첩경이라고[6] 하고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시작하였다. 홍언은 한문과 중국어에 능통하여 주로 화교를 담당하는 위원이 된다.[7] 1921년경에는 뉴욕을 비롯하여 중남미, 멕시코

5) 박미영(2002c), 「재미작가 홍언의 시조 형식 모색과정과 선택」, 『시조학논총』 18, 한국시조학회, 163-171면. 작가의 생애 참조.

6) 홍언 논설, 「긴급한 電報와 通信-在美同胞의 반성을 지촉함」, 『신한민보』 1920.2.12. 등 1920년 초의 논설을 장식하는 주요 주제였음.

7) 「홍언위원의 대활동」, 『신한민보』 1921.9.29. :「순행위원 홍언씨 환착」, 『신한민보』 1922.11.16. 등 지속적으로 순행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기사 혹은 논설 등으로 게재 된다. 그리고 劉伯驥(1981)의 『美國華僑史』(台北)에도 홍언의 문학작품 및 독립운동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방선주(1989), 『재미한인의 독

로 여행하여 화교들을 방문하게 되고, 1922년에는 캘리포니아 각지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의 모금 여행과 강연 여행은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까지 계속된다. 여행 도중에라도 『신한민보』에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곤 하는 삶의 연속이었다.[8]

1926년 멕시코 여행 후에 『신한민보』에 〈씀결에 반긴 在墨同胞〉라는 기행문을 1927년 11월 3일부터 1928년 3월 29일까지 20회에 걸쳐 연재한다. 여기서 동포에 대한 소식도 있지만 맥시코의 풍물과 풍습, 얽힌 이야기 등을 중심 소재로 하고 글 도중에 감회를 시로 읊어 삽입하기도 하여 전형적인 기행문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1935년 홍언은 뜸하던 詩作活動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도화선이 바로 夢遊時調라 할 수 있는 〈꿈에 고국에 가서〉 연작시조 8편이다.[9] 이를 계기로 활동을 재개하는 홍언은 1935년 9월 2일 각지 중국인의 초대로 샌프란시스코를 떠나[10] 1936년부터 오래건, 애리조나 등 미국 서남부지역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대 여행길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미국 기행가사의 창작과 발표가 이뤄진다. 이것이 1차 기행시가 22편이다. 그 후에도 홍언의 여행은 계속되지만 1949년 죽음을 앞두고 〈가주기행〉이라는 제목 하에 11편의 캘리포니아 기행시조를 발표한다. 이것이 2차 기행시가라고 할 수 있다.

두 차례 발표되는 기행 시가-가사와 시조는 모두 조국을 그리는 몽유 가사·시조의 발표에 뒤이어 『신한민보』에 게재된다.[11] 이는 홍언

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79면).

8) 전기적 사실에 대해서는 방선주(1989)의 『재미한인의 독립운동』과 박미영(2002c) 참조.

9) 박미영(2004), 83-92면.

10) 「홍언씨 출촌」, 『신한민보』 1935.9.5.

11) 박미영(2004)에 의하면 첫 번째 게재되는 몽유가사는 1935년 5월 9일부터 8편으로 나누어 연재, 두 번째 몽유시조는 1947년 10월 2일부터 6회 연재된다.

이 다양한 여행 체험 속에서 특히 이 두 시기에 기행 가사와 시조를 창작·발표한 데는 작가의 의도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특히 1945년 한국의 독립이라는 사건을 분수령으로, 먼 이국땅인 미국에서 일제치하라는 제약성 때문에 갈 수 없는 조국을 그리는 때와, 자유로이 조국을 갈 수 있지만 이민지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씌어지는 작품 속에는 극명하게 달라지는 작가의식이 게재함을 볼 수 있다.

2.1. 1차 미국기행가사 : 이민자의 향수와 비판적 대미 인식

홍언이 모금 운동 혹은 『신한민보』와의 관계 속에서 공적이나 사적으로 북미지역을 여러 차례 여행하였다. 여행에서 본인이 여행지에서 느낀 것을 발표한다는 의식 하에 발표되는 작품으로서[12] 미국여행에 대한 첫 번째 紀行 詩歌는 개화가사의 형식으로, 1936년 1월에서 1937년 4월 사이 "동히슈부(東海水夫)"라는 필명으로 22 편이 『신한민보』에 발표된다.

홍언이 1935년 9월경부터 화교들의 초청으로 여행이 시작되어 캘리포니아 일대는 물론 오래건,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등 미국서남부 전역을 거치고 있다. 발표되는 차례를 보면 캘리포니아 산타마리아에서 접경지대인 애리조나의 유마, 그리고 콜로라도 강 상류인 루스벨트 호수,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남부, 도산 안창호의 거처가 있는 로스엔젤레스, 그리고 다시 캘리포니아 북부 쪽인 샌프란시스코, 새스타 산이다.[13] 이들을 여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1937년 발표되는 〈시스타산의 절경〉(1937.04.15.)과 1937년 4월 29일 자에 한꺼번에 게재되는 〈아츰의 밝은 빛-썬스미어에셔〉〈베농쟝을

12) 「가주여행을 하며 보고 들은 것」, 『신한민보』 1936.1.16.
13) 부록 참조.

지나며-윌로우스로부터 윌리얌스까지〉〈안기를 쓸코 가며-뻬비스 평원에셔-〉와, 〈평원의 농사집-시스타를 지나 라모리에셔-〉(1937. 5.13.)에는 창작 일자가 밝혀져 있는데 모두 1936년 12월 20일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여정을 따라 가기보다는 각 여행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주목할 수 있다.

홍언이 1차 기행에서 특히 노정하고 있는 사실은 현지 생활인이긴 하지만 이민자인 他者로서 내면 갈등과, 미국을 바라보는 홍언의 對美認識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일제하의 해외유이민들은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심각한 생활고 때문이든 조국을 거의 강제적으로 떠나오게 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낯선 나라에 적응하면서 그곳 국민들의 냉대 속에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민지에서 겪는 고통은 조국의 독립에 대한 갈망,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와 더불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먼저 멀리 있는 조국이나 어떤 이상보다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고달픈 삶의 현장을 노래하고 있는 일련의 시들을 살펴보자. 1차 기행의 첫 게재시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산중의 쳐녀-싼타마리아 산중에서〉이다. 다음의 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첩첩산중은 세상과 격리하는 역할을 하고 세상의 풍파를 막아준다. 1 연에서 "一 셧는 산 놉다라케/세상을 막아잇고/그 아릭 가는 물은/웃 업시 세샹으로"라고 한 반와 같이 물을 통해 세상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기에 거울을 보고 세상을 통경하는 산타 마리아의 산중에 사는 처녀에게 이 세상살이의 고달픔을 말한다. 세상의 맛은 탄식과 눈물로 점철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홍언이 인식하고 있는 삶이다.

五 이 산은 휘쟝이오/이 물은 거울이라/거울을 보고 늑겨/휘쟝을 거드치랴
六 휘쟝을 거드치면/그 박기 세상이라/세상에 쓸려가면/단맛이 잇을테지
七 세상맛 못보고셔/단줄로 아는 것은/사람의 쳔셩이니/뉘 능히 막으랴만

八 단 ᄭᅳᆺ혜 쓴맛이란/탄식과 눈물이며/엡분이 미워져셔/산중을 그려오리![14]

이와 같은 탄식과 눈물의 삶은 다음 두 시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더위-중가주 티푸트에셔-〉와 〈길-틱사스 하이웨이에셔〉를 살펴보자.

一 기름광 사다리가/하늘에 다은 곳에/히발이 다리밟고/닉례를 오는겐가?
二 넘어도 쓰겁기에/놀라셔 쳐다보니/화경이 나츄걸려/인간을 터우련다
三 모릐가 다는 긔운/치밀어 이글이글/먼 산에 붉은 연긔/불빗에 빗치난듯
四 이에셔 좀더하면/터지는 기름광에/초목이 쓸어지고/금셕이 흘을겐더
五 여긔셔 사는 사람/네 어니 못가느냐?/간난히 츄은 살림/더위를 참는게지
六 헤여진 우리 형데/흘린땀 받아노면/강물도 되련만은/말라셔 흔젹업소![15]

一 ᄭᅳᆺ업시 벋은길에/슈업시 가는 사람/히ㅅ귀가 잇을 쩌에/제각기 가는모양
二 비단을 감은 쟈는/쇠수례 편히 안져/쳐토록 술 마시고/고기를 집십으며
三 헐버셔 람루한 이/거름이 집신 감발/먹지도 못힛든지/긔식이 창량하다
四 히진 후 이 길우에/자최가 ᄭᅳᆫ허지니/누구나 가는 사람/가기는 다 갓거니
五 웨 사람 길가는고?/일 잇어 가는게니/일 업는 쇠수례는/집신만 못한게라
六 헐벗고 집신 감발/주려서 가더릭도/일 잇어 가게되면/일한 것 남길게지!
七 길다러 무러보쟈/무슈히 가는 중에/일 잇어 가는쟈를/멧이나 보앗느냐[16]

먼저 인용한 〈더위〉는 캘리포니아 중부 유전지대인 태프트(Taft)에서 과중한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이 태프트 油井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노동을 했다 한다.[17] 보통 사람들이 참지 못할 더위 속에서 추운 가난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 땀이 강을 이룰 수도 있는 데도 그조차

14) 〈산중의 쳐녀〉-싼타마리아 산중에서-『신한민보』 1936.01.02. 1465호.
15) 〈더위〉-중가주 티푸트에셔-『신한민보』 1936.09.03. 1499.
16) 〈길〉-틱사스 하이웨이에셔- 『신한민보』 1936.07.16. 1492호.
17) 방선주(1989), 285면.

더위 때문에 흔적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모래가 이글거리며 불길이 솟아 초목이 다 쓰러지는 유정의 구체적인 묘사 속에서 초기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겪는 현실의 비참함을 읊고 있다.

다음에 인용한 〈길-틱사스 하이웨이에셔-〉에서는 우리 노동자는 입지도 먹지도 못해 거의 죽을 지경이나 고용주는 비단옷을 입고 자동차를 타며 최상의 음식으로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물질적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물질이 있으면서 할 일이 없는 자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없더라도 할 일이 있는 자로 대비하여 보여주면서 헐벗고 주린 자가 해 놓은 일이 세상에 남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로서, 호의호식하는 하는 미국인보다는, 죽을 고생을 하고 일을 하는 이민자인 짚신이 그래도 낫다고 한다. 쇠수레, 즉 자동차로 대변되는 미국인과 짚신으로 상징되는 한국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일 있는 짚신이 더 낫다고 함으로써 고통을 참으며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독립을 갈망하는 이민자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독립의연금을 모금하러 다니면서 수없이 귀환을 다짐하는 독립에의 의지와 현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해외유이민자로서 양면적인 고통을 느끼고 현지에서는 소수의 他者일 수밖에 없는 내면의 갈등이 시의 주제가 되는 것이다.

이민지의 고통은 생계를 해결하려는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다. 애리조나 주에서 만난 인디언을 보면서 정복자인 백인 미국인과 인디언을 대비해서 인종의 문제를 읊어 내고 있다. 홍언은 미국의 원주민이면서 서구문명에 밀려 삶의 터전을 잃어 이방인 신세가 되어버린 인디언들에 특히 관심을 가진다. 인디언들의 옛 삶의 터전, 암굴거주지였던 클리프 드웰링(Cliff Dwelling)의[18] 어느 인디언의 옛 궁을 찾아서 다음과 같

18) 부록 주 2) 참조.

이 노래하고 있다.

一 져녁이 비인 청산/흰 시가 날아든다/그림의 붉은 시는/쑴갓치 셔잇고나
二 문허진 산성 안에/불어진 쥬초돌은/녯날의 황시디왕/올랏든 디궐이오
三 후뎡에 돌아들어/옥돌을 깔아논 것/왕후가 목욕한 후/누어셔 잇든 디라
四 시털관 안이뵈고/북소리 고요하니/졀벽을 직힌 장사/젼징이 쉬여젓다
五 十자가 통한 길이/텬국에 다앗지만/네 고향 니버리고/발길이 돌아셔랴
六 셩 아릐 안즌 로인/쳐량이 말하기를/자손이 유마에셔/바구미 졀이 팔어[19]

인디언들의 위대한 건축물이었던 클리프 드웰링은 이제 폐허가 되고, 어느 궁터에서 남은 웅장한 유적을 보면서 화려했던 과거의 흔적을 재구해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무너진 성터와 어울리는 노인이 있을 뿐이다. 옛날이었더면 전사였을 젊은이는 옛 고향을 버리고, 정신적인 지주를 잃고 유마에서 바구니를 결어 파는 신세로 전락하고만 사정을 읊어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음의 두 가사에서는 좀더 정신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전략
四 활살이 썩거지고/시털관 일엇지만/령혼이 살게되면/면류관 얻을게지
五 텬국에 들어간 후/썩지를 안는 량식/육신이 인간에셔/주림을 슳허하랴
六 익피취 죠흔 명산/녯정을 다 닛고져/싼 세상 에루살렘/밋음에 바라보니[20]

전략
五 종각에 올으난 길/층게를 싸은 돌은/홍인이 굴렷건만/아는 쟈 업는게라
六 문 압헤 웃고 셧는/신부님 손에 셩경/잘 먹고 살진 몸들/심의로 가렷으니[21]

먼저 인용한 시는 유마의 성당에서 읊은 〈인딜 텬주교당〉이라는 세 편의 연작시 중 두 번째 작품이다.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인디언들을

19) 〈인디안의 녯 궁〉-클리푸 쑤월링에셔-『신한민보』 1936.02.13. 1471호.
20) 〈인딜 텬주교당 二쟝〉-아리조나 유마에셔- 제2장『신한민보』 1936.5.7. 1482호.
21) 〈쳔주교의 녯 졀-신타 바바라에셔〉『신한민보』 1937.01.28. 1519호.

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것들 즉 외부적으로 생명을 지켜주는 활과 화살, 그들의 상징인 새털로 만든 관을 포기하며, 그들의 삶의 터전인 명산을, 그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생각, 자부심을 모두 잊고서 새로운 정신적인 지주를 찾고 있음을 노래한다. 홍언은 4241년(1908)에 예수교회에서 학습을 받고 그 다음 해에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다.[22] 세례교인으로서 유마뿐만 아니라 산타 바바라 등 본인이 기행하는 곳의 성당을 자주 방문한다. 본인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인 내세관을 내보이지만[23] 여기서 발견한 인디언들은 위와 같이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기독교에 동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의 작품은 그 후 산타 바바라의 성당을 방문하고 지은 〈천주교의 녯 졀〉로 좀더 신랄해진다. 종각을 올리고 계단을 만들고 성당을 짓는 노동은 홍인이 하였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는 신부의 모습에서는 홍인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서양의 성경을 들고 살찐 모습으로 근엄한 예복을 입고 있다. 정복한 자와 정복당한 자로서의 백인 미국인과 홍인종 인디언의 차별성 속에서 홍언은 미국인과 한국인과의 관계라는 현실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의 고통을 노래하는 데서도 그러했듯이 이런 관계 속에서도 서양인인 미국인과는 다른 가치로서 인디언의 긍지를 노래한다.

전략
三 얼골이 붉엇으며/마음도 붉어 잇고/싱활은 네 풀더로/뉴욕과 치카코에/공교한 흰 사람의/화려와 엇더하냐
四 그곳의 흰 사람은/침침한 비단 휘장/젼긔등 가리우고/녹이든 령혼육신/너의를 쓸쓸하다/우습게 역이지만

22) 홍언이 홍사단에 제출한 자필 이력서에 근거한 것임: 박미영(2002), 168-169면.
23) 〈◉아츰의 밝은 빛-썬스미어에셔-〉『신한민보』 1937.04.29. 1535호.

五 너의는 이곳에셔/휘장이 구름이오/촉불이 명월이미/가슴이 시원하야/그들의 답답한 것/불상히 보는게라! 24)

위의 노래는 애리조나에 있는 아파치 트레일의 어느 곳에서 결혼하는 한 쌍의 인디언을 보면서 그 감회를 읊은 〈혼 쌍의 새짓〉이다. 이 노래는 앞서 인용했던 다른 노래들과 마찬가지로 一, 二 등으로 구별하여 기사하고 있지만 번호마다 다시 기사해보면 시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시조 한 편으로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一, 二, 三의 연들 중에는 연결어미로 연결되기도 하여 개화가사의 형식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25) 내용은 얼굴이 붉은 홍인종과 대도시 백인의 화려함을 대비시키고 있다. 도시의 물질적인 화려함 속에서 녹슨 영혼으로 홍인종들을 우습게 여기지만 인디언들은 도리어 자연 속에서 도시의 미국인들을 불쌍하게 여긴다고 하여 인디언들의 삶에서 고유한 영적인 가치를 높이 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사회 내에서 인디언들을 보면서, 인디언과 동일시되는 이민자의 낮은 경제적 지위와 인종차별 등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도 홍언은 돌아갈 조국이 있음을 위안 삼고 꿈에서나마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서 "고국으로의 귀환이 보장된" 이민자로서의 인식을 읽어낼 수 있다. 이는 여행길에 오른 나그네의 객수와 향수와 겹쳐져 나타나게 된다. 다음 시를 주목해 보자.

一 먼동이 터진 다음/한편의 검은 안기/밤빗을 거더가고/또 한 편 붉은안기/아참히 오는 소식

二 갈미기 셕벽 우에/큰 쑴이 「푸른 바다」/그더로 깁헛는더/힝인이 일즉써여/어더로 가려느냐?

---

24) 〈혼 쌍의 새짓〉-아리죠나 이퍽취 츄레일에셔-『신한민보』 1936.08.20. 1497호.
25) 박미영(2002), 184-185면.

三 산산한 물바람이/품안에 들어오고/바다풀 맑은 향긔/살 속에 비엿으미/
떠나기 익연하다
四 여기가 동히라면/「청약립 록사의로/가는 비 고흔 바람/도라를 가지안코」
/일싱을 지닐젠더...
五 어졔밤 베기우에/은근히 빗치우든/반달의 남은졍이/「쎌몬트」까지와셔/
외로히 가는 나를/보닉고 도라간다[26]

위의 시는 1936년 10월 15일에 발표된 〈'오순비유'를 떠나며〉이다. 오순비유(Ocean View)는 몬터레이에 있는 호텔로서[27] 몬터레이에서 떠나는 정을 노래한 것이다. 바로 이에 앞서 노래한 〈'오슌비유'의 하로밤〉에서 보면 몬터레이는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인 듯하다.[28] 여기서 하루밤을 지내면서 다시 "홀연이 닉의 몸이/갈미기 되엿든지/두 날기 활신 펴고/끗 업는 만경창파/맘더로 날나가니/이것이 꿈이런가?"[29] 하고 고국으로 날아가는 자유로운 갈매기가 되기도 하였다. 위 시에서는 이런 밤을 보내고 눈을 뜬 홍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끼며, 자신에게 "어디로 가려느냐"고 묻기도 한다. 그래도 홍언은 고국을 잊지 못하고 만약 "동해"라면 일생을 지낼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심정을 달로서 대신하고 있다. 밤에 자신을 자유로운 갈매기의 꿈을 꾸게 해주었던 몬터레이 바닷가 호텔에서 보았던 반달, 그 반달의 긴 배웅을 받으며 다시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해안의 아름다운 경치도, 또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 고국에 대한 염려와 향수로

---

26) 〈'오순비유'를 떠나며〉-몬트레이에셔-『신한민보』 1936.10.15. 1505호.
27) 부록 주 11) 참조.
28) 一 긱창을 열고보니/히양의 죠흔 풍경/창박게 기다리다/방 안에 들어올듯/눈압헤 와 잇으니/여긔가 '오슌비유'
二 밤중에 쉬는 물에/바람이 잔잔하야/안기가 엷어지고/반월은 빗도 졀반/으스름 하여지니/뭇별이 반짝반짝 〈'오슌비유'의 하로밤〉『신한민보』 1936.10.08. 1504호.
29) 〈'오슌비유'의 하로밤〉『신한민보』 1936.10.08. 1504호.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식은 고국과 비슷한 풍경을 지닌 바닷가에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 一 진쥬를 푸는 조기/겹품이 더접갓고/흰 살은 빅셜이며/물빗이 진주로다
> 二 비슷한 고국풍이/반기는 그리로셔/홀연히 싱각는 것/남양의 은셤일셰
> 三 물 우에 풀은 산이/풍경도 죠커니와/그 아릭 흰 모릭에/죠기를 키여다가
> 四 싱으로 회를 치고/익혀셔 먹는 맛은/정에도 잇는 게라/안먹지 못할겐닉
> 五 원수의 난징이가/룩디를 다 쎄앗고/〈바다도 닉것이니/조기를 못키리라〉
> 六 고향에 잇건만은/고향맛 그리워셔/궁금한 닉 고향이/타향과 갓다지오?[30]

홍언은 몬터레이 근처 모스 랜딩(Moss Landing)[31] 바닷가에서 다시 고국의 풍경을 발견하고 있다. 큰 조개와 물 빛, 푸른 산, 흰 모래. 이런 풍경뿐만 아니라 조개를 회로, 또 익혀서 먹으며 일제하에 있는 조국 땅을 생각하며 비분강개하게 된다. 고향이라고 있지만 "원수의 난쟁이"가 다스리고 있는 일제하에서 그 고향은 이미 타향이 되어버린 현실을 떠올린다. 고향과 비슷한 풍경만 보아도, 비슷한 물건만 보아도 금방 고향 생각으로 가득 차는 홍언은 언제 어디서나 향수에 젖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근처의 바닷가를 기행하며 느끼는 홍언의 정서는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심정을 다음의 시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 一 쇠수레 가는 길이/도라셔 이리져리/천봉이 주춤주춤/만학이 아즐아즐
> 二 젼나무 소슨 중간/안기가 셔리윗고/음달진 언덕에는/흰 눈이 씨엿더라
> 三 찌여진 그름 쌈에/아츰히 비여져서/비발에 빗치우니/은실이 밝앗으며
> 四 층암의 폭포수난/구슬이 부셔지고/그 아릭 시닉물이/콸-콸 흘너간다
> 五 공중에 걸친 다리/무지게 못쳣거니/졀벽에 달린 집은/그 누가 사는더냐?
> 六 청산을 바라볼 졔/져 먼 곳 어이갈고/게 가셔 도라보니/오든 길 아득하오[32]

---

30) 〈조개를 먹으며〉-무스린딩에서-『신한민보』 1936.11.05. 1508호.
31) 부록 주 14) 참조.
32) 〈시스타산의 졀경〉-마운트 시스타에셔-『신한민보』 1937.04.15. 1530호.

위의 시는 캘리포니아 주 북부에 있는[33] 새스타산을 기행한 감회를 노래한 〈시스타산의 절정〉이다. 신문에 발표되는 날은 1937년 4월 15일이지만 작품의 말미에 "一九三六, 十二, 二〇"라 하여 1936년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동차를 타고 새스타산의 정상에 오르면서 아름다운 경치들을 구체적으로 읊어내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서는 홍언의 처지를 반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야할 길을 아득하게만 바라보았는데 길을 가고 보니 산 길이 아득해져 있음, 살아가야 할 미국 생활보다 돌아가야 할 고향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의 갈등에 대한 어떤 심경이 내비춰지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볼 때 홍언이 발표한 첫 번째 기행가사에서는 이국적인 풍물 속에서 호기심을 드러내며 신기해하기도 하지만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모금이라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여 조국 독립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더불어 고국에 대한 향수를 볼 수 있다. 홍언의 첫 번째 기행가사는, 이민자들과 본국인들의 갈등양상은 물론 인디언들과 더불어 소수민족, 피압박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발견하며, 자신의 이민자적 처지를 인식하고 현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담아내고 있다 하겠다.

2.2. 2차 미국기행시조 : 이민지에의 애정과 순응 양식

홍언은 1차 기행시가를 발표한 이후에도 경물을 노래하는 시조를 자주 발표한다. 그러나 기행시가로 연작적 성격이 분명한 2차 기행시가는 1949년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행하는 미국 여행을 노래한 기행시조이다. 이 시조들은 〈가주긔힝〉이라는 고정 제목에 부제를 붙여 『신한민보』에 1949년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1차례 발표한다. 여기서는 『신한민보』에 문학 작품을 발표하면서 주로 사용했던 '동히슈부

33) 부록 주 15) 참조.

(東海水夫)'라는 필명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필명인 '추선(秋船)'을 사용하였다.

이들 작품에 앞서 1945년 독립 후에 홍언은 혼란이 가중되는 조국의 현실과 자신이 조국에 가지 못함을 주제로 노래하는데 1947년에 발표되는 〈꿈속에 강산〉이라는 제목의 연작시조이다.[34] 이는 꿈 속에 고국을 찾아가는 몽유 시조로 조국이 독립이 되었지만 이민지 미국 땅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민자로서 조국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다. 말하자면 꿈 속에 찾아간 고국의 상황은 독립의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의 대치상황이 전개되고 조국 땅에 살고 있는 자손들의 처지가 오히려 불상하도 하며 미국에 사는 자신의 처지를 두둔하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타향이라고 느끼고 언젠가는 꿈에 그리던 무릉도원을 찾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미국이지만 지금 와서 보니 도리어 평안하며 나아가서는 무릉도원이라 할 수 있겠다 의식 속에서 현실에 순응하고 만족하자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위로의 시조 〈무릉도원〉을 발표하기도 한다.[35]

이런 인식 속에서 1949년 캘리포니아를 기행하면서 『신한민보』에 게재하는 일련의 시조에는 평화로운 미국의 해안 도시들의 풍경이 담겨 있다. 이 시조들이 노래하는 캘리포니아의 여러 장소는 이미 수차례 여행한 곳으로 보이며, 1차 기행시조의 시기에 왔던 곳도 있다. 홍언은 캘리포니아 곳곳을 짧은 시조 속에 아름다운 풍경화의 한 폭처럼 묘사해 내고 있다. 이런 경치에 담아내는 작자의 태도를 살펴보자.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였지만 그때까지 한번도 정을 붙인 적이 없었던 곳에서 자신을 반겨주는 여러 가지 미국의 풍경들을 마음에 담고 정서적으로

34) 박미영(2004), 97-101면.
35) 〈무릉도원〉(『신한민보』 1947.04.07. 2033호) 등 다수의 시조에서 이런 의식이 드러난다.

도 합일하고 있다. 이런 태도와 심정은 다음의 여러 시조에서 발견된다.

청산도 의구하고 / 녹수도 의구하고
명월은 웃는드시 / 오는나 반기거늘
엇지타 보든갈ᄆᆞ기 / 모르난체 하오리[36]

녯날의 가주항구 / 풍경도 죠커니와
졈복이 대졉갓고 / 멸치가 명산이라
힝인이 제졍을붓쳐 / 먹고놀고 가노라[37]

첫 번째 시조 〈가주긔힝 / 무스린팅에서〉에서 노래하는 모스 랜딩은 몬터레이 근처로 1936년에도 방문하고 기행가사를 남긴 곳이다.[38] 당시 고향과 비슷하다고 느꼈던 이곳을 만년에 다시 찾아온 작자에게 이 땅의 풍광 산과 바다, 달이 반가운 눈길을 보내고, 갈매기에게 친숙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첫 기행에서는 경치가 고국풍이라서 오히려 고국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위의 시조에서는 이제야 풍광들이 자신을 반겨준다고 하여 자신이 풍광들을 반기고 친숙하게 느끼고 있음을 투사하고 있다.

둘째 시조인 〈가주긔힝 / 올드- 몬트레이에서〉에서 자신은 행인, 즉 나그네 이민자이지만 풍광도 좋고 물산도 풍부하니 이제는 정을 붙여 미국이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누리려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즉 반평생 가까이 他者로서 물위에 기름처럼 살았던 이민자 홍언이, 미국을 생활의 터전이자 자신이 이제 영원히 몸담을 곳으로 보아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세 수의 시조에서는 이런 의식이 더욱 선명해진다.

---

36) 〈가주긔힝 / 무스린팅에서〉『신한민보』 1949.10.6. 2156호.
37) 〈가주긔힝 / 올드- 몬트레이에서〉『신한민보』 1949.11.10. 2161호.
38) 〈조개를 먹으며〉-무스린딩에서-『신한민보』 1936.11.05. 1508호.

산머리 올라오니 / 여기가 인간천상
수풀에 자는구름 / 묘연히 바라보며
그곗헤 수간초옥이 / 뉘집인가 뭇노라[39]

빅구야 날지마라 / 너찾져 예왓노라
네본심 물이라면 / 내신세 구름이니
구름과 물의싱이가 / 갓치할수 잇고나[40]

프른산 락락장송 / 수풀이 향긔롭고
그아례 시너물은 / 수정이 흘너간다
이곳에 수간쵸옥을 / 얽어밀가 하노라[41]

〈가주긔힝 / 쎈루이스옵비스보에서〉를 노래한 위의 첫 시조에서는 미국의 땅을 인간세계의 복된 하늘처럼 여기며, 그 속에 있는 집에도 관심을 보인다. 〈가주긔힝 / 쌜몬트에서〉를 노래한 두 번째 시조에서는 이민자로서 여기저기 떠돌며 살아야 했던 스스로를 델몬트 바닷가를 나는 백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또 그렇게 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인용한 〈가주긔힝 / 킹스우롤에서〉에서의 경치는 산과 큰 소나무, 향기로운 수풀, 맑은 시냇물로 우리의 전통 시조 속에 흔히 표현되는 어휘와 이미지의 조합으로 표현되어 있다. 어쩌면 시조의 세계, 한국적 정서로 표현될 수 있는 경치 속에서 홍언은 바로 소박한 초가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하는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1949년에 발표되는 기행 시조에서는 1936년의 기행가사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볼 수 있다. 1945년 조국은 독립을 맞이하게 되고 그해 가을 미주한인대표 고국방문단이 결성된다. 그러나 홍언은 왕복여비와 숙박비를 마련할 수 없어 방문단에 참여하지 못하고, 꿈에도

39) 〈가주긔힝 / 쎈루이스옵비스보에서〉『신한민보』 1949.09.22. 2154호.
40) 〈가주긔힝 / 쌜몬트에서〉『신한민보』 1949.10.27. 2159호.
41) 〈가주긔힝 / 킹스우롤에서〉『신한민보』 1949.10.20. 2158호.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게 된다. 고국으로의 귀환이 좌절된 상태에서 발표되는 이 기행시조들에서는 1차 기행에서 보여준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와는 아주 다르다.

이제 홍언에게는 미국이 귀향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머무는 망명지가 아니라 영구히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이다. 이 미국 땅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서 이민지에 순응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풍광 속에서 따뜻한 시선을 발견해내고 또 이들에 대한 홍언의 마음 또한 비판적이기보다 애정어린 눈길로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홍언이 미국에서 발견해내고 수용하고자 하는 미국은 예전에도 있었던 미국을 있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식을 바꿈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재이미지화한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반추하고 추억하면서 각인시켰던 고향의 이미지로 미국을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이 좀더 거부감이 없이 미국에 순응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3. 인식 변모의 의미

홍언이 『신한민보』를 통하여 두 차례 집중적으로 발표한 기행시가의 국문학사적인 의의는 조선 후기 기행 가사·시조의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후기 기행가사가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경물묘사로부터 점차 기행공간이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을 얻고자하는 본격적인 기행문으로서의 성격에서 나아가 일상적인 삶의 한 양태를 반영하고 있는 전통성 속에서 홍언의 기행 시가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기행 시조의 경우, 조선 후기 이세보가 26세에 청나라를 기행하면서 지은 16수의 시조에서 경물 묘

사에 인상적 형상화와 대청의식이[42] 겹쳐져 나타나는 전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홍언이 직접 밟고 느끼는 미국의 자연은 일상적인 삶의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공간이면서, 1920년대 최남선이 밟았던 민족정신이라는 이념의 공간, 신비의 공간과도 같은 미국에 대한 혹은 고국에 대한 지향의식이 함께 담겨져 있는 곳이다. 기행문학이란 체험을 바탕으로 하며, 일차적으로는 경물(자연)과 풍속을 진술하는 방식을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홍언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연과의 관계설정을 넘어서 자연이 담기는 장소의 이데올로기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앞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기행시가의 발표는 홍언의 이런 문학사적인 의의를 충분히 노정하고 있다. 1936년과 1937년에 걸쳐 발표되는 첫 번째의 기행가사와 1949년에 발표되는 기행시조가 그것이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미국 기행이라는 점에서는 두 차례 모두 공통점을 가지나 그에 대한 인식은 사뭇 다르다. 여기에는 한국의 독립이라는 큰 역사적인 사건이 개입되어 있다. 공교롭게도 이는 홍언이 추억어린 조국 산하를 꿈 속에 기행하는 몽유 가사·시조와 맞물려 있는데 그 시기 또한 1, 2차의 기행시조가 발표되기 전에 1, 2차의 몽유 가사·시조가 발표되어 홍언의 의식 변화를 추적가능하게 하고 있다.

1차 기행가사에서 보여주는 홍언의 태도는 미국 현지의 자연 경물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고는 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식은 비판적이다. 인디언들의 비참한 상황, 서양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주변인으로 전락한 인디언과 미국인의 대비를 통해 이민자인 우리와 미국

42) 진동혁(1982), 「이세보의 기행시조 연구」, 『어문논집』 23, 고려대학교 : (2000) 『이세보시조연구』, 도서출판 하우, 343면.

인의 관계를 읽어내고 있다. 그리고 현지에서의 비참한 삶의 양상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읊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국에 대한 향수는 클 수밖에 없다. 자의든 타의든 강제적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또 귀환을 가로막는 조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국이 독립하는 그날까지 스스로를 다잡아 이민지에서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한다.

이런 기행가사에 앞서 발표되는 몽유 가사에 나타나는 조국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보면 더욱 이 의식은 선명해진다. 1935년에 발표되는 연작시가 〈꿈에 고국에 가셔〉는 시공을 초월하여 조국의 강산을 그리움으로 헤매고 있다. 30년 전, 조국에서 겪은 체험이나 추억이 농축되고 마음속에 각인되어 더욱 선명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유년기에 뛰어놀았던 남산을 반추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왜색으로 물들이는 일제하의 실정에 탄식하기도 하며 그 고향의 살찐 도미 맛 등으로 눈물짓는다. 그리고 하루빨리 고국으로 귀환하여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되기를 염원하는 것이다.[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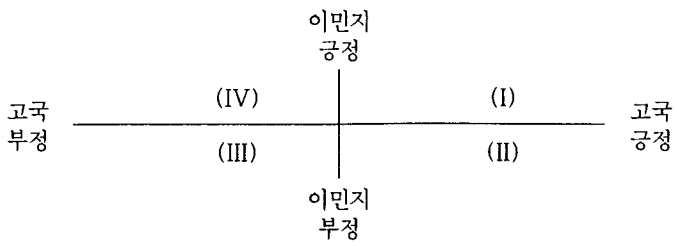
1차 기행가사와 몽유가사를 통해 보면 이민지인 현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고국에 대한 향수는 동전의 양면처럼 홍언의 내면의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45년 조국의 독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한 이후에 홍언의 태도에는 변화가 생긴다. 1945년 독립이 되어 이제는 남의 治下가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고국에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귀국, 귀향이 개인적인 선택의지에 맡겨지자 홍언은 경제적인 여건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이유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평소에 자주 다녔던 캘리포니아를 여

43) 박미영(2004), 92면.

행하면서 발표하는 2차 기행시조에서는 미국의 풍광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객관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는 다를 바 없지만 그 자연에다 애정어린 눈길이 주어지며, 나아가 정붙이고 살아야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한다. 여기에서 홍언이 두 번째 몽유시조, 즉 독립이 된 우리나라를 꿈속에서나 방문하는 〈꿈속에 강산〉를 통해 보여주었던 조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조국은 독립을 했지만 홍언에게는 독립이전에나 이후에나 고국은 꿈속에서나 가볼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이런 홍언에게 조국은 더 이상 추억으로 각인된 향수의 장소가 아니라, 분단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데올로기의 현장이며, 경제적인 빈곤으로 비참한 후손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으로 다가 온다.[44]

이로 볼 때 홍언은 초기 이민자로서 조국과 이민지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극명하게 지니고 갈등하면서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홍언의 이러한 태도가 잘 드러나는 기행시가의 작품세계를 통해 현재 이산문학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이론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에 대해 잠정적인 가설로서 다음과 같은 축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I)의 경우가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고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44) 박미영(2004), 100면.

더불어 순조롭게 이민지의 생활과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민지와 고국과의 왕래가 순탄하며 양 쪽 모두에 물적 기반이 있다면 가능한 국면이다. 작품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문학사에 당당하게 영입될 수 있는 문학작품이면서 참다운 미국문학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적인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언어문제가 깊이 관여한다.

(II)의 경우는 고국과의 유대관계가 끈끈하고 고국에 대한 끊임없는 귀환의 욕구가 있는 것으로 현지 적응에 실패하거나 현지 적응의 노력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일제 치하의 망명자들 혹은 이민 1세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고, 본국 귀환이 전제된 유학생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때 고국에 대한 향수와 현지에 대한 부적응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 민족 기원으로의 회기라는 민족얼, 참자아 찾기로 귀결된다.

(III)의 경우가 가장 불행한 경우로 영원한 방황과 유랑으로 국제적인 혹은 초국가적인 유목민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편주의도 토착주의도 거부하면서 고정적인 자기정체성에 묶이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자기정체성 자체를 유동적인 것으로 만드는 진정한 후기식민 문학의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IV)의 경우는 망명이든 이민이든 이민지에서 살 수밖에 없을 때 좋든 싫든 선택해야 하는 방법일 것이다. 고국으로의 귀환 욕구 또는 고국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고 현지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면서 현실에 적응해나가는 것이다. 특히 이민 1.5세 이상의 이민자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해당할 것이다.

홍언의 경우는 처음에 (II)의 처지에서 (IV)의 처지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가 미국기행을 통해 현지 풍물과 현지인식을 담은 기행시가문학에서는 그 어느 작품에서보다 이러한 태도가 더욱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IV)의 경우에 현재 재미한인작가들

이 보여주는 미국 이데올로기 수용태도와는[45] 다른 양상을 보여 더욱 그 경과적인(transition) 의식의 전환이 주목된다. 즉 미국의 이데올로기, 현실 그 자체의 수용하며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 꿈과 향수로 상징화된 긍정적인 이미지를 미국의 현실에 덧씌우는 과정, 문학적 재이미지화(Re-imagination)과정 혹은 현실의 상상적 공간화 과정이 게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심하게는 현지에의 동화라기보다 인지부조화적인 내면의 갈등에 잠정적인 타협점을 제시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4. 결론 : 장거리 민족의식의 해명을 위하여

지금까지 재미작가 홍언(洪焉:1880~1951)의 美國 紀行 詩歌-가사와 시조를 대상으로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의식과 그 변모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1936년과 37년, 그리고 1949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는 미국기행 시가를 중심으로 돌아갈 고국이 있음을 전제한 망명자로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갈등, 돌아갈 고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게 된 현실 즉 조국 귀환에로의 욕망 좌절과 현지 동화를 위한 자아의 갈등을 고찰하고 이민지에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본질에 대해 가설적인 좌표를 마련해 보았다.

현재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특수와 보편 등의 관계 양상 속에서 세계 도처에 흩어진 고려인, 조선인,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경계 및 민족문학의 경계 혹은 자국문학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45) 이동하(2004), 「재미 한인 소설을 통해서 본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만남-강용흘과 김은국을 중심으로」, 『전농어문연구』 15·16,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26면.

진행되고 있다. 일찍이 망명지 문학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어[46] 최근 디아스포라 혹은 후기식민주의이라는 개념의 틀 속에서[47] 일본 지역에 대한 문학과 작가에 이론적 모색[48], 중앙아시아·러시아지역의 문학과 작가에 대한 연구,[49] 미국의 최근 작가 연구[50] 등등을 통하여 세계 도처에 이산되어 있는 한민족의 문학에 대한 접근 시각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연구를 통해 확인되는 작가의식은 고국으로의 귀환욕구와 그리움으로 점철되는 것은 향수, 그리고 현지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며 이민지의 시민·국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체성확보로의 처절한 노력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 고찰한 홍언의 기행 시가는 이민지인 미국의

---

46) 박근배(1993), 「일제강점기 만주체험의 시적 수용 : 이용악·유치환·백석 시를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논문.
오양호(1996), 『일제 강점기 만주 조선인 문학연구』, 문예출판사, 등 다수.

47) 윤인진(2004)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고려대학교출판부)에서 재외한인 경험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하면서 그들 간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디아스포라(diaspora)'을 설정하고, 재외한인의 경험 즉 이주, 차별, 적응, 문화변용, 동화, 공동체, 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역사학, 인류학, 민속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언어학 등등의 개별적인 연구를 극복하고 이들 간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48) 이연숙(2001)은 「디아스포라와 국문학(Diaspora and National Literature)」(『민족문학사연구』 19, 민족문학사학회)에서 국민문학을 성립시키려면, 자국의 문학과 타국의 문학을 절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재일작가들의 이산문학적 특성, 끊임없는 유랑과 방황이 오히려 일본문학과 한국문학을 역으로 규정지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49) 이명재 외(2004)의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한국문화사)에서는 러시아 연해주나 중앙아시아에 걸친 옛 소비에트 지역에서 살아온 고려인들을 통해 고려인의 민족정체성과 디아스포라 욕망을 중심으로 고려인 문학을 연구하고 있다.

50) 이동하(2004)의 「재미 한인 소설을 통해서 본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만남-강용흘과 김은국을 중심으로」(『전농어문연구』 15·16,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최근의 작가들이 현지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시민으로 재탄생하는 정체성의 확립과정을 논의하였다.

자연과 인간이라는 복합적인 관계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것으로서 고국/이민지, 자아/타자, 향수/현실적응 등등의 현재 離散, 혹은 후기식민 문학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복잡미묘한 정체성확인 지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확산될 이민지 작가들의 정신적 지향-고국과 이민지라는 두 힘의 관계양상 속에서 향수와 현지 적응에의 노력이라는 정체성 확인에 대한 다양한 축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본다.

이 연구에서 더 이상 깊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후기식민주의의 큰 범주로 다뤄지는 장소와 경험에 작용하는 언어의 문제를[51] 개입해야만 하는 것이다. 작자가 자신의 언어로 낯선 환경과 일련의 새로운 경험들을 표현하는 것-이것이 또한 홍언의 전통 시가형식 활용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언에 대한 연구는 더 심화되어야 한다. 홍언은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소설, 수필, 역사단평, 가사, 시조, 현대시, 키노드라마 등 다양한 갈래에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대량으로 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에 나타나는 작가의식의 변모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국이민 속에서 미국계 한국문학 연구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화가 진전되어 설령 일종의 단일 세계정부 비슷한 것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서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가상공간의 출현으로 민족과 국가에 구애받지 않는 'global nomade(세계인으로서의 유목민)'가 탄생한다 하더라도 언어와 지역적인 토대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에게 아직도 유효하면서도 지식인의 책임과도 같은 장거리 민족의식(long-distance nationality)의[52] 실체를 해명하는 이론적 토

51) 더글러스 로빈슨, 정혜욱 옮김(2002), 『번역과 제국-포스트 식민주의 이론해설』, 동문선, 42면.

52) Benedict Anderson(2001), Western Nationalism and Eastern Nationalism: Is

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자료

『신한민보』 1~6, 아세아문화사 영인(1981).

『신한민보(1909~1973)』 1~27, 논문자료사 영인(1991).

임선묵(1981), 『근대시조대전』, 홍성사.

조규익(1999),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1~6, 월인.

국가보훈처 편(1998-2001), 『海外의 韓國獨立運動史料 - 美州篇』 1~6, 국가보훈처.

2. 국내 논저

고승제(1973), 『한국이민사연구』, 장문각.

김경일 외(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김용철(1996), 「기행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김원룡(1959), 『재미 한인 50년사』, 김호(Charles Ho Kim) 발행, Reedley:Calif.(철필 프린트 본)

김윤규(2002), 「재미한인 이민소재소설의 갈등구조-『뉴욕문학』의 경우」, 『문학과언어』 24, 문학과언어학회.

나정순(1989), 「시조장르의 時代的 變貌와 그 意味」,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문무학(1996), 「일제강점기 流移民 시조 연구:〈新韓民報〉를 중심으로」, 『대구어문론총』 14, 대구어문학회.

박구하(2002), 「신문학과 현대시조의 물꼬를 튼 선각자:육당과 소원」, 『시조문학』 144, 시조문학사.

박근배(1993), 「일제강점기 만주체험의 시적 수용 : 이용악·유치환·백석 시를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논문.

박미영(1994), 「본문분석에 의한 역대시가론의 시조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there a difference that matters?, *New Left Review*, 2001. 5·6. pp.31~42. : 유희석(2002), 「한국계 미국작가들의 현주소-민족문학의 현단계 과제와 관련하여」『창작과 비평』 30/2. 2002 여름호. 290면에서 재인용.

부설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_____(2002a), 「〈신한민보〉소재 시가의 이민문학적 성격」, 『진리논단』 7, 천안대.
_____(2002b), 「홍언의 시조에 나타난 해외유이민의 삶과 의식」, 제33차 전국학술대회, 한국시조학회.
_____(2002c), 「재미작가 홍언(洪焉:1880~1951)의 시조 형식 모색과정과 선택」, 『시조학논총』 18, 한국시조학회.
_____(2004), 「재미작가 홍언의 몽유가사·시조에 나타난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21, 한국시조학회.
방선주(1989),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오양호(1996), 『일제 강점기 만주 조선인 문학연구』, 문예출판사.
유희석(2002), 「한국계 미국작가들의 현주소-민족문학의 현단계 과제와 관련하여」, 『창작과 비평』 30/2. 2002 여름호.
윤인진(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이길용(1992), 『미국이민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이동하(2004), 「재미 한인 소설을 통해서 본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만남-강용흘과 김은국을 중심으로」, 『전농어문연구』 15·16,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이명재 외(2004),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문화사.
이연숙(2001), 「디아스포라와 국문학(Diaspora and National Literature)」, 『민족문학사연구』 19, 민족문학사학회.
이호재(1982), 「二次大戰 중 韓國人의 對外認識과 主張:〈新韓民報〉의 내용을 중심으로」, 『亞細亞研究』 68, 고려대 아세아문화연구소.
정기철(2001), 『한국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역락.
조동일(1991),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_____(2005), 제4판 『한국문학통사』 1~5, 지식산업사.
진동혁(1982), 「이세보의 기행시조 연구」, 『고려대어문논집』 23:(2000), 『이세보시조연구』, 도서출판 하우.
최강현 엮음(1996), 『한국 기행문학 작품 연구』, 국학자료원.
표재복(1998), 「미국유이민의 발생과 신소설」, 『어문연구』 30, 어문연구회.
현균환(1976), 『한국유이민사』 상·하, 삼화출판사, 1976.

3. 국외 논저

Anderson, B., 윤형숙 역(2004),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Preminger, Alex(ed.)(1974), Encyclopedia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Univ. press.
Reichenbach, H., 이정우 역(1986), 『시간과 공간의 철학』, 서광사.
레이 초우, 장수현 외 역(2005),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이산.
Robinson, Douglas, 정혜욱 역(2002), 『번역과 제국 : 포스트식민주의 이론 해설』, 東文選.
로버트 J. C. 영, 김택현 역(2005),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박종철출판사.
릴라 간디, 이영욱 역(2000),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에드워드 W.사이드(1994), Culture and Imperialism, 박홍규 역(2005), 『문화와 제국주의』, 문예출판사.

〈abstract〉

A Study on The Diaspora-Consciousness of Author in the travel-siga of Korean-American Writer Hong-Eun(1880~1951)

Park Mi-Young

This study focuses on Korean-American writer Hong-Eun(1880~1951)'s American travel gasaes and sijoes who played an active role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Hong-Eun's experience and expression on American travel and culture and discusses his changes in stream of consciousness. According to American travel sigaes which were published in the *New Korean Times* in 1936, 1937, and 1949, his consciousnes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ravel siga depicts his inner conflict as a refugee who lost one's home country. That is to say, by observing Indians' losing

identity and their miserable labor conditions, he developed his own critical eyes on American society. Eventually he missed his country desperately and sought for the ways of his returning there. Second travel sijo reveals his own agony about not be able to return his home country where he could possibly visit. In other words, after suffering from his agony, it is evident that he started to take positive attitude towards American society and establish his own identity. Based upon Hong-Eun's changes in consciousness as a writer, the researcher hypothesizes that there exists Diaspora-Consciousness in his work. His consciousness is strongly related with his attitude towards his home country whether it is positive or vice versa. When his home country declared her independence, his attitude towards immigrant society was positively changed, which was quite contradictory from his previous one. In this transition period, not only he accepted American ideology and life, but he re-conceptualized them as a Korean mode. In sum, Hong-Eun's mental traces lie on the core of hybrid and diaspora which Post-Colonial literature values highly of.

Keywords : Hong-Eun, Richard Hong, Korean-American Writer, Donghae-subu(Sailor of the East Sea), Korean Immigrant Literature, sijo, travel, travel-sijo, travel-literature, diaspora literature, Sinhan-minbo(The New Korea Times), Daehanin-kukminhoe(Korean National Association)

【부록】

홍언의 미국 기행가사 · 시조 작품 목록

〈참고문헌〉

Jensen, Jamie(1999), *Road Trip USA*, CA:Moon Publications.
Collins North America, London:Collins, 1999.
중앙M&B(2003), 『미국 서부 100배 즐기기』, 중앙M&B.
방선주(1989),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인터넷 주정부(http://my.ca.gov/state/portal/myca_homepage.jsp) 및 주요 도시 홈페이지.

1. 1차 기행시가
   (1) 1936.01.02. 1465 〈산중의 처녀〉-싼타마리아 산중에서-1)
   (2) 1936.02.13. 1471 〈인디안의 넷 궁〉-클리푸 쑤월렁에셔-2)
   (3) 1936.05.07. 1482 〈인딜 텬주교당 二장〉-아리조나 유마에셔-3)
   (4) 1936.05.21. 1484 〈홍장미〉-우루스벨트 호슈에셔-4)
   (5) 1936.07.16. 1492 〈길〉-텩사스 하이웨이에셔-5)
   (6) 1936.07.23. 1493 〈사막의 쏫〉-아리죠나 피닉스에셔-6)

---

1) Santa Maria, California.
2) Cliff Dwelling. 지금의 애리조나 · 뉴멕시코 · 콜로라도 · 유타 주가 만나는 지역의 절벽 양쪽 가장자리나 돌출부 밑에 지었던 푸에블로 인디언의 암굴 주거지를 말한다. 유명한 곳으로는 현재 Colorado 주의 Mesa Verde에 있는, the Mesa Verde plateau, 메사버디 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Cliff Palace로 절벽 면에 1200-1300경 이뤄진 집단주거지로 절벽 면에 200여 채의 집으로 이뤄져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애리조나 주의 Montezuma Castle, Canyon de Chelly 등이 있다.
3) Yuma, Arizona. 유마는 California 접경임.
4) Theodore Roosevelt Lake, Arizona. 애리조나 주의 Salt River를 막아 댐으로 만들며 조성된 호수. Phoenixd와 피닉스의 태양의 계곡(the Valley of the Sun)을 개발하는 원동력이 된다. 뒤에 언급될 아파치 트레일(Apache Trail)의 중요 관광지이기도 하다.
5) Texas. 미국 남서부의 주.
6) Phoenix, Arizona. 애리조나 주의 州都.

(7) 1936.07.30. 1494 〈사막의 명월〉-뉴멕스코 알라모고도 사막에서-[7]
(8) 1936.08.20. 1497 〈흔 쌍의 새깃〉-아리죠나 이퍼취 츄레일에서-[8]
(9) 1936.09.03. 1499 〈더위〉-중가주 터푸트에서-[9]
(10) 1936.10.01. 1503 〈시벽 씀〉-중가주 힌포도에서-[10]
(11) 1936.10.08. 1504 〈'오슌비유'의 하로밤〉[11]
(12) 1936.10.15. 1505 〈'오슌비유'를 써나며〉-몬트레이에서-[12]
(13) 1936.10.22. 1506 -퍽시픽 그로부에서-[13]
(14) 1936.11.05. 1508 〈조개를 먹으며〉-무스틴딩에서-[14]
(15) 1936.12.24. 1515 〈시벽의 산촌〉-오레곤 시스타 산중에서-[15]
(16) 1936.12.31. 1516 〈시 예루살렘〉-오레곤주 시스타 산중에서-
(17) 1937.01.28. 1519 〈천주교의 녯 졀〉-신타 바바라에서-
(18) 1937.04.15. 1530 〈시스타산의 졀경〉-마운트 시스타에서-
(19) 1937.04.29. 1535[16] ◉아츰의 밝은 빛-썬스미어에서-[17]

---

7) Alamogordo, New Mexico. 뉴멕시코 주에 있으며 남태평양(Southern Pacific) 철도의 분기점이다. 근처 트리니티사막에서 1945년 7월 16일 원자폭탄이 최초로 시험폭파되었다.
8) Apache Trail, Arizona. 애리조나의 the Superstition Mountains에 있는 아파치족들의 승합 역마차길로 이 길을 따라 가면 the Tonto National Forest와 Theodore Roosevelt Dam과 Lake 등을 관광할 수 있다.
9) Taft, California. 캘리포니아의 Kern County에 있는 시이다. 캘리포니아의 중요 유전과 천연가스 갱이 있는 곳이다.
10) Hanford, California. Hanford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중부 킹스 군의 군청소재지(1893)이며 시로. 1871년에 정착이 이루어졌고, 머슬슬라우 분쟁으로 알려진 목장주들과 철도회사 사이의 불화로 1880년 이곳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11) Monterey, California에 있는 Ocean View 호텔. 방선주(1989), 285면.
12) Monterey, California.
13) Pacific Grove, California.
14) Moss Landing, California. Santa Cruz에서 한 30분정도 Monterey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Watsonville 조금 지나서 Moss Landing이 있으며 주가 정한 해수욕장(State Beach)이다.
15) MT. Shasta,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의 Redding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새스타 산을 말한다. 홍언은 오레곤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930년대 당시의 주 경계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6) 아래 세 편이 같은 날짜에 게재됨. 작품의 끝에 1936년 12월이 표기되었는데 창작한 날로 생각된다.
17) Dunsmuir, California.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접경지대인 Siskiyou County의 한

(20) 1937.04.29. 1535 ◉베농장을 지나며-윌로우스로부터[18] 윌리얌스까지[19]
(21) 1937.04.29. 1535 ◉안기를 뚤코 가며-쩨비스 평원에셔- [20]
(22) 1937.05.13. 1534 〈평원의 농사집〉-시스타를 지나 라모이에셔-[21]

2. 2차 기행 시가
(1) 1949.09.15. 2153 〈가주긔힝 / 싼타바바라에서〉[22]
(2) 1949.09.22. 2154 〈가주긔힝 / 쎈루이스옵비스보에서〉[23]
(3) 1949.09.29. 2155 〈가주긔힝 / 살라나스에서〉[24]
(4) 1949.10.06. 2156 〈가주긔힝 / 무스틴팅에서〉
(5) 1949.10.13. 2157 〈가주긔힝 / 히프문쩨이에서〉[25]
(6) 1949.10.20. 2158 〈가주긔힝 / 킹스우롤에서〉[26]
(7) 1949.10.27. 2159 〈가주긔힝 / 쌜몬트에서〉[27]
(8) 1949.11.03. 2160 〈가주긔힝 / 싼타크루스에서〉[28]
(9) 1949.11.10. 2161 〈가주긔힝 / 올드-몬트레이에서〉[29]
(10) 1949.11.17. 2162 〈가주긔힝 / 뉴몬트레이에서〉
(11) 1949.11.24. 2163 〈가주긔힝 / 에스 씨티 에서〉[30]

논문투고일 : 2006년 6월 1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2006년 7월 18일

도시다.
18) Willows, California. 새크라맨토 북쪽 Glenn County의 한 도시다. 1920년 이 지역에 샌프란시스코 한인비행학교가 세워졌다.
19) Williams, California. Colusa County의 city of Williams로 Willows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20) 쩨비스 평원은, 위의 썬스미어가 Dunsmuir의 한글 표기라 본다면 California의 Sacramento 근처의 아주 평평한 곳으로 농장지대인 Davis인 듯함.
21) 라모이는 미상임. 원본 상태가 좋지 않아 러모어, 라모이와 같이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을 구별하기가 힘들다.
22) Santa Barbara, California.
23) St. Luis Obispo, California.
24) Salinas, California.
25) Half Moon Bay, California.
26) 킹스우롤은 미상임.
27) The elegant Hotel Del Monte 1880년 Monterey에서 개장된 a grand resort임.
28) Santa Cruz, California.
29) Monterey, California.
30) 에스 시티는 미상임.